

**2019 서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보고서**

2019년 11월

서 천 군 의 회

목 차

I. 공무국외출장 개요	1
II. 출장일정	3
II. 출장준비	4
IV. 주요 일정별 출장내용	6
1일차) 이든프로젝트	6
2일차) WWT 슬림브릿지	11
3일차) 게이트헤드, 셰필드	16
4일차) 테이트 모던 미술관	26
5일차) 대영박물관	30
V. 시사점(특이사항)	32
VI. 정책제언	34

I

공무국외출장 개요

1. 목 적

- 장항제련소 브라운필드 토이지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제 네트워크 구성을 준비하고자 함

2. 출장추진 및 배경

- 장항제련소 브라운필드 오염토지 정화사업이 내년 중 마무리 예정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
- 장항읍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선진사례 연찬

3. 기 간 : 2019. 10. 21.(월) ~ 27.(일) 5박 7일

4.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영국

- 런던습지센터(WWT) 방문: 브라운필드 내 생태습지 조성 방안 사례 분석 및 WWT와 협력방안 구상
- 이든 프로젝트 방문: 브라운필드 내 생태체험관 조성 방안 정보 수집
- 게이트헤드, 발틱현대미술관, 테이트모던미술관 : 브라운필드 장항 ART 프로젝트 관련 사례 수집 및 분석

5. 출장인원 : 10명(군 의회 8, 서천군 2)

6. 이동경로



7. 출장자 인적사항

번호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	군 의 회	의 장	조동준	
2	군 의 회	운영위원장	노성철	
3	군 의 회	의 원	이현호	
4	군 의 회	의 원	김아진	
5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	김은이	
6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김범수	
7	의회사무과	행정7급	신성용	
8	의회사무과	행정7급	유지성	
9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조성룡	
10	기획감사실	행정6급	임정환	

II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출 장 일 정
제1일차	인 천 런 던	13:20	인천 출발
		17:25	런던 도착(12시간 소요)
제2일차	콘 윌	전일	▶공식방문 : 장항제련소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브라운필드 재이용 사례중 하나인 이든 프로젝트 방문 - 고령토 폐광위에 세계 최대 온실을 조성한 사례
		19:00	☞정책토의(당일 연수내용에 대한 소감과 군정접목방안 등 토의)
제3일차	글로스터	전일	▶공식방문 : WWT(슬립브릿지) 방문 - 도시재건설 및 지속가능한 개발사례로 콘크리트 저수지를 긴밀한 조경과 재활용을 통해 만든 국제적 수준의 인공습지
		19:00	☞정책토의(당일 연수내용에 대한 소감과 군정접목방안 등 토의)
제4일차	게이츠 헤 드 세필드	전일	▶광산 폐쇄정책에 의해 몰락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게이츠 헤드 방문. ▶게이츠 헤드 도시재생사례 중 하나인 발틱현대미술관 등 방문. - 제분소 건물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전시공간 활용. ▶공식방문 : 영국 탈산업화 이후, 중공업에 의존하던 세필드의 도시재생을 맡고 있는 Sheffield City Partnership 방문
		19:00	☞정책토의(당일 연수내용에 대한 소감과 군정접목방안 등 토의)
제5일차	런 던	전일	▶공식방문 : 도시재생 사례 중 하나인 데이트모던미술관 방문. - 화력발전소를 개조해 2000년 5월 개관한 현대미술관
		19:00	☞정책토의(당일 연수내용에 대한 소감과 군정접목방안 등 토의)
제6일차	런 던	오전	▶장항 ART프로젝트 사업 중 근대 미술관 조성관련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대영박물관 방문
		19:35	런던 출발
제7일차	인 천	14:35	인천 도착

Ⅲ

출장 준비

1 출장 준비 회의

- 일 시 : 2019. 10. 15.(화) 15:00~16:00
- 장 소 : 의회 특별위원회 사무실
- 참석대상 : 출장대상자 10명
- 내 용
 - 국외출장 일정 및 준비사항 설명
 - 현지 기관방문에 따른 질문지 작성 및 사전학습 공지 등

2 사전 질문지 작성

- 이든프로젝트

1. 초기 사업추진단계에서와 현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있다면?
2. 환경복원 수범사례와 지역적 효과를 떠나서 전지구적으로 실질적인 파급효과와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3. 고령토 폐광위에 토목적인 이유가 아닌 식물식재를 위한 별도의 토양 개량 노력을 하였는지?
4. 지역교육사업에 있어 환경관련 교육사업에 국한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을 위한 장소로도 제공되고 있는지?
5.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하여 저개발국 지원이나 에너지 공동구매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6. 이든프로젝트 사업 추진 배경과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분야는?
7. 지역 주민들과 협업 사례와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8. 이든프로젝트 관광객수?(내국인, 외국인, 재방문객)
9. 초기 사업 추진단계에서 지역 주민과의 대립과 갈등이 있었는지?
대립갈등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 문제점을 대처 하였는지?
10. 현재 최고의 온실로 자리매김 하였는데, 몇 년 후에 발전 방안은 어떤 형태로 모색하고 있는지?

○ WWT(슬립브릿지)

1. 템즈강이 바로옆에 있는 상황에서 저수지를 매립하여 습지대신 주거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적 가치가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굳이 습지를 조성한 이유는?
2. 습지조성으로 인한 주수입원은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
3. 서천군에도 인공습지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해안가에 있어서 염습지로도 가능하고 민물습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 참고로 조성 면적은 40~50ha 남짓 될 것으로 예상됨.
4. 인공습지 조성에 대하여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잘못 조성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인공습지를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달라.
5. 서천은 동아시아-대양주 이동 철새의 주요 중간 기착지이다. 인공생태 습지가 철새의 쉼터로 기능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6. WWT에서는 인공생태습지 운영으로 관람료 등 상당한 자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규모에 대하여 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7. WWT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생태습지를 조성하면 정부 재원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이러한 경우 운영 주체는 어느 단체가 운영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 셰필드 시티

1.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필요절차와 방법이 있다면?
2.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도시미관, 주민편익, 경제적가치 창출 등)
3. 도시재생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적 부분과 더불어 그러한 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부분의 노력이 있다면?

IV

주요 일정별 출장내용

1 1일차) 이든프로젝트 방문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9. 10. 22.(화) 14:00~16:30 (현지시간)
- 성명(안내자) : Ms. Julie Kendall(Horticultural Team Lead)
- 소재지 : Bodelva, Par PL24 2SG,
- 연락처 : +44 1726 811911
- 홈페이지 : <https://www.edenproject.com/>
- 시설소개
 - 이든프로젝트는 60m 깊이로 흉하게 파헤쳐진 채 버려져 있던 고령토 폐광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1996년에 기획하고 1998년에 착공한 후 2001년 3월에 개장하였음.
 - 이든프로젝트의 설립에는 총 1억 4,000만 파운드가 투입되어 조성되었으며 그 외 여러 단체에서 지원받은 기금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음. 현재는 비영리 재단이자 사회적 기업인 에덴파운데이션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익은 사회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 다시 재투자된다는 점이 영리기업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음.



□ 주요활동내용

시설견학 및 현황 청취(안내 : Julie, 원예부 팀장)

○ 주요 견학시설 : 돔 식물원, 야외정원, 방문자센터, 로컬푸드식당, 체험학습실 등

○ 현황청취(요약)

- ▶ 이든프로젝트를 처음 조성할 때는 흙이 없는 움푹 꺼진 암반 절단면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상태였음. 그래서 8만 3천톤의 흙을 구입해서 절단면을 바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음. 초기 조성 후 정원이 안정화 되기까지 5년의 세월이 필요했음.
- ▶ 이든프로젝트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함. 야외돔에 조성된 아이스링크와 부대시설들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할로윈과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를 하고 있음. 이는 다소 어려운 주제인 조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게 하려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음.
- ▶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음. 1년에 하루 문을 닫고 지역주민 전체를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빅런치’ 행사를 하고 여름철 콘서트를 개최할 때 지역주민들은 2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학교와도 연계수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응답

Q) 초기 사업추진단계에서 문제점과 현재 운영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A) 돈을 모으는 것이 어려웠음. 아이디어를 믿고 투자하는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 지금도 가장 큰 문제는 돈임. 시설의 유지에 필요하고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함. 영국은 입장료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없음. 투자회사와 일을 하지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피트 물 배수)은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음.

Q)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국제 협력 계획이 있는지?

A) 콘월 외에 지역협력사업을 하기에는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하지 못하고 있음. 지역 협력사업으로는 빅런치라는 행사가 있는데 콘월 사람들이 모두 1년에 한번 모여서 점심을 먹는 행사로 그날은 전시관을 닫고 행사에 협조하고 있음. 호주,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협력관계를 요청했으나 현재 맡고 있는 일도 버거워서 거절하였음.

Q) 고령토 폐광 위에 식물식재를 위한 별도의 토양개량 노력을 했는지?

A) 8만 3천톤의 흙을 사서 깔고 벌레등을 채집해서 풀어놓는 등 노력을 했으며 안정화에 5년이 걸렸음.

Q) 지역교육사업에 있어 환경관련 교육사업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을 위한 장소로도 제공되고 있는지?

A) 교육사업에는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음. 지역 대학교와 연결하여 환경분야 외 관광학 등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Q) 이든프로젝트 사업 추진 배경과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프로젝트는?

A) 중점을 두는 부분은 사람과 식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이나 코카콜라가 어디에서 오는 줄을 모르고 있음. 이런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고 색다른 것을 선보이는 것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생동안 정글에 갈 일이 없는데 열대우림관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도했음.

Q) 초기 사업추진단계에서 주민과 갈등이 있었는지?

A) 처음에는 2초 짜리 단순한 아이디어를 위해 막대한 예산낭비를 한다는 비판도 많았고 데모를 하기도 했으나 사업이 정착하고 전국적인 관광시설이 되면서 주민과의 관계도 안정되었음.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하려는 노력도 계속해왔음.

Q) 현재 세계 최고의 온실로 자리매김 하였는데, 몇 년 후에 발전 방안은 어떤 형태로 모색하고 있는지?

A) 원예학자로서,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재미있는 것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려고 함. 그리고 스토리가 가미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DMZ 식물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리고 식물을 통해 사람들끼리 연결하는 일을 모색하고 있음.

Q)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A) 정부가 이런 것을 지원하려 하지 않음. 영국의 큐가든도 정부 지원이 끊겼음. 입장료를 받는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펀딩을 하지 않는 추세임.

Q) 호텔을 지으면 지역경제 파급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호텔 단지내 소비유발만 될 우려가 있을텐데.

A) 호텔을 만드는 이유가 사람들이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오랜 시간) 쉽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함. 그리고 운영되는 재료들은 콘월에서 모두 얻고 있음. 그래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함. 콘월에 있는 호텔리어들과 일 년에 두 번 워크숍을 하는 등 지역 숙박업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Q) 1년에 몇 번 쉬는지?

A) 크리스마스 단고 1월에 월요일과 금요일 주2회 문을 닫음.

《방문기관 사진》



정책토의

- 일 시 : 2019. 10. 22.(화) 21:00~22:00 (현지시간)
- 참 석 자 : 출장자 10명
- 토의장소 : 머큐어 엑서터 루즈몬트 호텔 카페
- 토의내용 요약

▶ 이든프로젝트에 대한 개인 의견 교환

- 대체로 바이오돔 내부는 국립생태원이 더 낫고 외부 정원은 이든프로젝트가 보다 더 잘 꾸몄다는 의견임.
- 이든프로젝트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았는데(스케이트장, 할로윈 준비 시설 등) 이는 국립생태원 등에서 차용해야 할 사례라고 판단됨.
-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와 점심을 함께하는 이벤트는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 브라운필드 사업 추진 시 반영

- 브라운필드에 제2국립생태원 시설이 들어선다면 이든프로젝트처럼 지역 경제에 보다 더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것임.
- 이든프로젝트의 관람 체류시간이 길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태원도 체류시간 증가를 위하여 관내 연계 관광수단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궤도형 전기차 등 이동수단이 필요함.
- 브라운필드 사업추진시 주변 지역자원과의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민의 정서를 담아 튼튼한 지지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2 2일차) WWT 슬림브릿지 방문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9. 10. 23.(수) 11:00 ~ 13:00
- 성명(안내자) : Mr. Chris Rostron(Head of Wetland Link Interntional)
- 소재지 : WWT Slimbridge, Bowditch, Slimbridge, Gloucestershire, GL2 7BT
- 연락처 : +44 1453 891900
- 홈페이지 : <https://www.wwt.org.uk/>
- 단체소개
 - WWT는 영국의 자선단체로서 1946년에 설립되어 1993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등록된 보증에 의해 자선회사로 전환되었음.
 - Wildfowl & Wetlands Trust는 습지와 습지 종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습지 종을 멸종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고, 다시 번성하도록 종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함.

□ 주요활동내용

시설견학 및 현황청취(안내 : Chris WLI 팀장)

- 주요 견학시설 : 조류서식지, 탐조대 등
- 현황청취(요약)
 - ▶ 운영수입 : 입장료, 카페, 개인 기부금이며 사기업으로 등록되어있기는 한데 자선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음. 정부단체에서는 거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음. 입장료 매출이 17백만 파운드 정도 되고 후원이 5.7백만, 회비 수입 12.8백만, 기념품 샵 운영 5백만, 나라 지원금 60만 파운드임
 - ▶ 구성 : 9개의 센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센터와, 복원팀, 교육, 샵 등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있음. 지역적으로 습지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곳에 시설을 세웠는데, 2개 정도가 (런던은 인공습지 소머셋이 염습지와 인공습지) 서천이 조성하려는 인공습지와 관련이 있을 듯함.
사례) 소머셋 습지 : 4년 전 농경지를 염습지로 만들었음.

이곳은 기온변화와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 철새의 습지로 정하기 위해서는 원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띄는 것이 가장 중요함. 그리고 철새의 종류에 따라 염습지나 민물습지 형태를 정해야 함. 방문객에 대한 생각도 중요함. 방문객들이 왔을 때 새가 놀라서 도망가면 안되기 때문에 새는 방문객을 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 하구 측 들어오는 깊이가 4미터였는데 조성 후 16미터로 깊어졌음.



▶ WWT의 사업

- 1) 홍수예방사업 : 식물이 있는 장소가 홍수에는 강할 수 있음. 슬림브릿지에서는 식물 심는 것을 통해 도시 홍수예방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음.
- 2) 농장에 오염물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음.
- 3) 세계적인 습지조성 협력사업 : 중국, 마다가스카르, 홍콩, 스리랑카 콜롬보, 동유럽 습지 등
- 4) 야생조류 보존사업 : 영국 서부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종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독일에서 알을 가져와서 부화한 다음에 살수 있도록 추진(멸종 예방)
- 5) 지역기반 컨설팅 : 마다가스카르 락소피아를 복원하는 사업을 해왔음. 람사르와 WWT는 파트너관계로서 많은 일을 같이 하고 있음. 교육적인 사업 등 WWT가 하는 일은 국가와 람사르 기구 간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음.

웻랜드 링크 인터네셔널(WLI) 아시아 지부는 순천에 있음. WLI 아시아 컨퍼런스는 올해 12월에 타이페이에서 개최할 예정임.

6) 컨설팅 : 영국에서는 국제컨설팅 생태관련 조사와 철새 도래지 조성 등 컨설팅 일을 하고 있음

사례1) 런던습지센터 : 템즈강 옆에 콘크리트 시설을 걷어내고 습지를 조성하였음. 런던은 건물을 지을 때 관련해서 녹지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택지개발을 할 때 조성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18백만 인공 습지를 조성하게 되었음.

사례2) 홍콩 웻랜드 파크, 지울롱코도 마스터플랜, 두바이 습지 등

질의응답

Q) 서천이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하구에 있어 염습지와 민물습지 모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A) 자연적으로 만드는게 최고. 기수역, 조류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야 함. 물의 레벨, 유속, 식물 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Q) 런던 등 인공습지의 경우 새들이 자연스럽게 오게 만든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부화시켜서 자라게 한건지?

A) 찾는 새들에게 맞는 습지를 조성, 자연적으로 오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자연적으로 오는 개념도 있지만 동물원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음. 특히, 우리 습지에는 홍학 서식지가 있는데 환경적이지도 않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시스템임.

Q)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있다면?

A) 성공=중국이 최근에 하기도 했고 사이트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선정되었기 때문

어려웠던곳=마다가스카르는 농업을 계속 해온 관계로 토질이 안좋아서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아쉬운 곳=동유럽/불가리아는 많은 수의 조류 사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적으로는 기온 차가 큼.

Q) 런던센터 같이 주변에 대규모 택지가 있으면 습지 생태계가 영향받지 않을까?

A) 당시에는 장소 자체가 버려진 곳이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라서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했으며 우리는 새들이 찾을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함.

《방문기관 사진》



정책토의

- 일 시 : 2019. 10. 23.(수) 19:30~20:00 (현지시간)
- 참 석 자 : 출장자 10명
- 토의장소 : 머큐어 달링톤 킹스 호텔
- 토의내용 정리

▶ WWT에 대한 개인 의견 교환

- 습지에서 새들이 사람을 피하지 않고 먹이를 쫓는 등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유일하게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홍학을 기르는 곳인데 자연스러움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동물원 의미로 파악해서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의견이 같이 존재함.
- 이든프로젝트와 같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조류라는 테마를 가지고 단순한 탐조기능을 떠나 연구,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함.

▶ 브라운필드 사업 시 추진 방향

- 서천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면 아이들을 위한 체험 교육시설을 조성해서 생태교육의 장소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안내원의 설명 중 런던습지 상류는 민물습지이고 하구는 염습지인데 브라운필드에도 민물습지와 염습지를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겠음.
- 브라운필드 인공습지 조성은 솔리천 기수역 복원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에는 주변 농경지에 염해 방지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함.
- 습지조성 후 터전을 잡을 주요 식생대에 대한 사전조사, 연구를 통하여 향후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습지조성과 더불어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생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노력필요.
- 습지조성으로 인해 주거 및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신뢰와 동참 유도필요.



《정책토의 장면》

3 3일차) 게이츠 헤드, 세필드 시티

《게이츠 헤드》

□ 게이츠헤드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9. 10. 24.(목) 09:30~11:00 (현지시간)
- 소재지 : S Shore Rd, Gateshead NE8 3BA
- 연락처 : +44 191 478 1810
- 홈페이지 : <http://www.baltic.art/> (발틱현대미술관홈페이지)
- 주요시설 : 북쪽의 천사, 밀레니엄브릿지, 박틱현대미술관, 세이지음악당

□ 주요시설 현황

▶ 북쪽의 천사(The Angel of the North)

이 작품은 1994년 세계적인 조각가인 안소니 고펠리(Anthony Gormley)에 의해 제작되었고, 1998년 게이츠헤드 남쪽 로펠의 언덕에 세워지게 됨. 작품 제작에는 총 백만 파운드(약 20억)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 비용은 대부분은 국가 복권기금(National Lottery)에서 지원함.

이 천사는 160 km/h의 바람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고, 건물 5층과 맞먹는 20m의 높이와 점보비행기와 비슷한 54m의 폭을 자랑함. 이 조각상이 위치한 곳은 게이츠헤드의 남쪽인데, 이 곳은 하루에 최소 9만 대 이상의 차가 지나가고, 동부해안을 따라 런던에서 에딘버러로 기차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임.

▶ 밀레니엄 브릿지

타인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영국 뉴캐슬 어폰 타인(Newcastle upon tyne)과 게이츠헤드(Gateshead)를 잇는 보행자와 이용자를 위한 길이 100m 정도의 다리. 배가 통과하는 시간에 높이가 올라가면서 모양이 웅크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웅크하는 다리’로 유명함.

다리의 기능적 요소와 미적요소가 잘 어우러진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음.

▶ 발틱현대미술관

발틱 현대미술센터(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는, 2002년 7월 영국 북동 지역 뉴캐슬어폰타인(Newcastle upon Tyne)시에 맞닿은 게이츠헤드(Gateshead)에 개관함. 1950년대부터 약 30여년 간 밀가루 제분소로 사용되다가 방치된 건물을 개조하면서, 이 지역에 부족한 예술적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타인(Tyne) 강변에 산재한 여러 건물 중에서도 그 웅장한 크기와 장소성 때문에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였던 이 건물이 약 4천 6백만 파운드(한화 약 8백억원)의 예산투자로 3천 평방 미터의 전시 공간을 갖춘 대규모 아트 센터로 변신한 것. 발틱 현대미술센터는,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에 이어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현대미술 전문 갤러리로, 소장품 없이 오직 전시 프로그램들로 운영(기획전시)되는 갤러리 중에선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임. 이 덕분에 게이츠헤드 또한 문화·관광 명소로서 이미지를 바꿀 수 있게 되었음.



《북쪽의 천사》



《밀레니엄 브리지》

▶ 세이지 음악당

세이지 음악당은 건축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의 디자인으로 약1,400억 원을 들여 2004년에 개장함. 세계적인 수준의 음향시설을 갖춘 1,7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400석의 소공연장, 세미나실, 리허설 룸, 주민들을 위한 음악학교, 음악 정보센터 등으로 구성. 공연 외에도 갖난아기부터 70세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민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며 공연과 교육이 각각 50%의 비중을 차지함.

□ 주요 활동내용

시설견학

○ 과거 탄광과 공장지대로 아주 번성했던 곳이나 탈산업사회 진행으로 경제가 쇠락,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정책으로 **북쪽의 천사**, **밀레니엄브리지**, **발틱미술관**, **세이지음악당** 등이 대표적인 상징물로 탄생함.

▶ 재생예술의 성공적 본보기라 할 수 있는 **북쪽의 천사**는 높이 20미터의 거대한 철재 조각상으로 게이트헤드의 랜드마크로 연간 수백만의 관광객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우리군에서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필요성이 있는 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상징물의 설치보다는 제련소 굴뚝 등 기존의 상징성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 것임.

▶ **밀레니엄 브리지**는 길이126m, 폭8m, 높이50m 도개교로 사람과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고 타인강을 사이에 두고 게이트헤드와 뉴캐슬 두 지역을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교량 역할뿐 아니라 예술성을 가미한 독창적 설계로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함.

☞ 동백대교도 서천과 군산 양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새로운 관광명소화하기 위해서 교량 자체는 물론 양지역 교량진입로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조성 등 노력이 필요함.

▶ **발틱미술관**은 30여 년간 밀가루 제분소로 사용된 건물을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현대미술작품의 기획전시와 더불어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연간 25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보여주고 있음.

☞ 근대건축물 또는 폐산업시설의 활용방향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지역에 다양한 기능으로 재생가능한 견고하고 규모있는 폐산업시설이 없는 것이 아쉬움.

- ▶ **세이지음악당**은 소라고동을 모티브로 하여 건축하였으며 대공연장, 소공연장, 세미나실, 주민 음악학교, 음악정보센터 등으로 구성, 공연 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 ☞ 추후 유사사업 추진시 건축설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좋은 참고사례가 되고 있음.



《세이지 음악당》



《발틱미술관》

《세필드 시티》

□ 세필드 시티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9. 10. 24.(목) 14:30~16:30 (현지시간)
- 성명(안내자) : Mr. Marcus Newton(Head of Urban Regeneraion)
- 소재지 : Albion House, Savile St, Sheffield S4 7UD
- 연락처 : +44 114 201 8888
- 홈페이지 : <http://www.scci.org.uk/>
- 도시소개
 - 영국 잉글랜드 북부 사우스요크셔카운티의 세필드시는 16세기부터 양질의 철강을 생산하는 산업단지였음. 일찍부터 철강산업, 군수산업, 광학기기 등 정밀공업과 숙련기술이 유명한 산업도시로 발전했으나 1980년대 국가간 경쟁 심화로 철강산업이 쇠퇴하자 실업률이 높아지고 구도심은 낙후되기 시작함. 그래서 세필드 시에서는 1984년부터 기존의 철강산업을 대체한 새로운 미래형 산업으로서 지식정보산업, 정밀기계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형 레저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 육성하고자 정책방향을 선회함. 이를 위해 1980년대 후반 세필드 시의회는 ‘문화산업도시’로의 변신을 결정하. 수많은 디자인과 영화, 출판관련기업들이 옛 철강지역에 입주하고, 교외형 대형쇼핑센터인 메도우 홀(Meadow Hall)건설, 빅토리아 부두 및 시티공항 개발, 로우어 돈 밸리(Lower Don Valley) 개발, 세필드 밸리(e캠퍼스) 구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1991년에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여 도심내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함.

□ 주요활동내용

기관방문 및 도시재생 개요 청취(안내 : Marcus 도시재생 부서장)

- 세필드는 1,2차 세계대전때 군수공업 중심의 철강산업으로 번성했던 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일본, 중국 등 경쟁에 밀려 쇠퇴의 위기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장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IT, 의료소재, 항공, 탄소소재산업 등 신산업으로의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 학교에서 신산업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도심지 재생은 과거와 현재의 공존, 도심지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두 가지 대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 또한 타문화에 수용적인 정책을 통해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도시재생은 돈의 문제보다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함. 지역에 맞는 큰 그림을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원을 세계적으로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임.



○ 타운홀 주변 현장 설명

▶ 타운홀 광장은 뉴밀레니엄을 맞이하여 1997년에 조성되었음.

행정업무를 하는 타운홀 건물은 옛건물을 쓰고 있고 씨티홀은 주민을 위한 공연,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주변에 있는 호텔은 비즈니스센터와 함께 업무차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회의공간, 숙박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맡고 있음.

▶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은 광장 및 대로변에서 봤을 때의 파사드(겉면)는 보존한 채 밖에서 안보이는 뒷부분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보존성과 실용성을 모두 살리고 있음. 그리고 과거에는 행정 도심에는 사무실만 있어서 저녁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는데 우리는 도보 가능한 거리에 모든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만들어, 일하는 곳과

거주하는 곳을 같이 조성함과 동시에 문화시설과 쇼핑시설을 함께 조성해서 공동화된 도심을 다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상주하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음.

그리고 셰필드는 외국의 종교, 문화에 대해 상당히 수용적인 분위기를 견지하기 때문에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거주하고 있음. 일례로, 비즈니스센터 1층 식당가에는 가능한 많은 나라의 식당을 만들어 외국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편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 도시재생에 관하여 지역에 남들이 갖지 않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세계에 어떻게 알릴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질의응답

Q) 장항은 중공업도시로 발전했다가 쇠락했던 역사가 있음.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장항의 도시재생과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셰필드가 장항과 비슷하게 중공업도시인 것은 유사하나 이곳과의 차이점은 셰필드는 현재까지 공업이 건재하다는 점임. 해군 선박 건조 등 철강산업이 활발하였음.

1차, 2차세계대전 시 군수산업으로 번창했으나 마가렛 대처 수상이 나온 1979년 이후 철강자재 확보가 어려워져 어려움이 있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일본 등과 경쟁이 심화되어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이었음.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대처가 오면서 당이 보수당으로 바뀌면서 철강산업 등을 민영화하면서 거의 10만명의 철강산업 종사자가 해고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대학교에서는 졸업자를 계속 배출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했으며 시설적으로는 1800년대의 인프라(공장)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춰 어떻게 개조할지가 문제가 대두되었고 일자리는 없는데 시설 운영 비용은 많이 드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주변 카운티로 이전을 했다. 도로나 역주변으로 공장이 이전하고 공장이 다 떠난 이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 되었는데 EU에서 자금을 지원해 재정비사업을 하게 되었음.

90년대 이후로는 탈공업화를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화이트칼라 산업을 특화 지역대학에 IT분야 인재를 교육하는 등 주력 산업의 방향을 첨단 산업쪽으로 개조하였음. 지역의 대학교도 첨단산업 분야에 많은 학과를 늘려 현재 6만명 까지 정원을 늘렸고, 외국인 학생들도 많음.

아울러, 대학에서는 여러 분야의 산학연 연구를 넓혔음. 예로 롤스로이스와 보잉의 항공산업과 연계하여 주변에 4백만 파운드 공장을 유치함. 그리고 5천만파운드 규모의 맥라렌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였음.

산업의 형태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고 인력이 덜 투입되는 형태도 바뀌어가고 있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에 기술인력을 육성할 수 있었음. 전통적으로 영국 아이들이 대학교를 안감. 가더라도 예술분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셰필드는 도제식 수업을 인정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서 배워서 기술적으로 접목이 가능함.

도시재생을 하는 것은 돈이 많이 필요하다기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임.

Q) 셰필드 도시재생 성공의 핵심은 무엇일까?

A) 철강과 의학 기술 분야의 접목, 인공관절 등 첨단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바꾼 것이라 생각함.

Q) 산업구조 변화는 기업이 주도하는 것인데 셰필드 시가 여기에 참여한 것이 있는지?

A) 시에서는 재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SOC 등을 가설하는 것 등 너무 한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임. 왜냐하면 해당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임.

《방문기관 사진》



정책토의

- 일 시 : 2019. 10. 24.(목) 20:25~21:30 (현지시간)
- 참 석 자 : 출장자 10명
- 토의장소 : 힐튼 가든 인 버밍엄 브랜들리플레이스 호텔 1층 라운지
- 토의내용 요약

▶ 게이츠헤드 방문 후 느낀 점

- 북쪽의 천사와 밀레니엄 브릿지 같은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예산 낭비의 비판이 따른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 발틱현대미술관은 소장미술품 없이 기획전시로만 운영이 잘 되는 것이 좋아 보였으나 주변에 도시기반과 적정 수준의 인구 규모가 받쳐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함.

▶ 셰필드시티 방문 후 느낀 점

- 셰필드나 장항이 쇠락한 공업도시임에는 같기 때문에 도시 전체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 오랜 기간 고민했다는 점은 배울만한 점이라고 생각.

- 우리가 생각한 도시재생은 관광객 모집 등 개별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셰필드시티는 지역 전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넓은 시야로 보는 것 같음. 우리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군정 접목 제안**

- 도시재생의 핵심은 사람들이 도시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있음. 문제는 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정주 여건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여러 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임.
- 외부 사람들을 끌어올수만 있다면 바람직하나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현 거주민의 이탈을 최소화 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생 정책을 펴야 할 것임.
- 장항지역의 도시 재생은 문화적 재생 쪽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하드웨어적인 면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역량을 어려서부터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함.
- 도시재생을 위해 시설투자를 늘리는 것은 현재 인구 감소 추세 등을 볼 때 신중해야 함. 몇 십년 후에는 인구감소로 예산이 줄어 SOC 유지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지자체가 나올 것이라 함. 중요한 것은 시설물을 늘리는 것 보다 장항 송림 숲과 같이 지역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함.



《정책토의 장면》

4 4일차) 테이트 모던 미술관, 런던 도심지역

□ 테이트 모던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9. 10. 23.(수) 11:00 ~ 13:00
- 성명(안내자) : Claudia Antonia Merkle(Head of Public)
- 소재지 : Bankside, London SE1 9TG
- 연락처 : +44 20 7887 8888
- 홈페이지 : <https://www.tate.org.uk/visit/tate-modern>
- 시설소개
 - 테이트모던은 런던 밀레니엄 브릿지와 함께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0년 5월에 개관한 현대 미술관임. 원래 이 곳은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 시설이었는데 공해문제로 공장이 이전한 후인 1981년부터 문을 닫은 상태였고 건물 한가운데에는 발전소용으로 사용하던 높이 99m의 굴뚝이 그대로 남겨져 있으며 밤이 되면 등대처럼 빛을 발함. 미술관은 역사, 신체, 풍경, 정물의 4가지 주제에 맞게 전시하고 있으며 주로 20세기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음.

□ 주요활동내용

시설전학 및 현황청취(안내 : Claudia 팀장)

- 본 건물은 비잔틴 양식 건물임. 외관이 공장처럼 되어 있는데 굴뚝은 99미터임. 조성 초기에는 런던 중앙에서 3,300제곱미터를 전시공간으로 만드는 생각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하지만 20년 동안 버려진 높은 굴뚝의 폐건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에 이곳을 재생하기로 함.
- 테이트모던 중앙출구의 특징은 일반적인 계단형 출구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연령대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예술가들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비트는 시도가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음.



- ▶ 1층 터빈 홀 :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장임. 현대 그룹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두 점의 전시물을 1년씩 전시함. 첫 번째 예술품-카라 워커스는 아프리카 어메리칸으로 50대임. 버킹검 궁 위의 브리타니안 상과 대응시켜 노예와 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만듦. 대영제국이 기념하는 정복전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상기시키는 작품임.
- ▶ 1층 기름탱크 설치장소 : 벽에 보면 사람얼굴 같이 생긴 것은 기름탱크를 설치한 H빔을 자른 단면임.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름 탱크 설치장소였음. 터빈이 고장난 후 밑을 더 파서 현재 템즈강 수위보다 바닥이 낮은 상태임. 이벽에 있는 기름냄새와 지저분한 외관은 이 박물관의 역사성을 상징함.
- ▶ 1층 경사면을 눈을 감고 내려가는 체험 : 건축가의 의도는 항상 빛이 있는 곳에서는 쉽게 느끼지 못하지만 인생이 어려워질 때 (빛이 없고 어두울 때) 우리가 어떻게 감각이 변하는지에 대하여 느껴보도록 하는 것임.
- ▶ 1층 기름탱크 : 굉장히 큰 박물관에서 굉장히 작은 오일탱크에 들어갔는데 큰 장소에서의 미니멀한 공간을 볼 수 있음. 테이트모던은 다른 건축가들의 작품과는 다르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 2층 건물 밖 : 미술관 외관 벽들은 스위스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어 쌓았으며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오차가 1밀리미터도 안된다고 함. 특히 비둘기가 벽돌 사이에 들어와서 배설물을 싸지 못하게 정교하게 만들었음.
- ▶ 3층 경사진 바닥 : 미술가는 직각구조가 사람을 옥죄게 하는 것임. 건축물 바닥도 수평으로 만들 필요는 없음.

- 테이트모던이라는 곳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의 장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하고 테이트모던이 생각하는 공공의 공간은 사람을 만나 얘기를 하고 교류하는 장소임. 어떻게 보면 크게 만들어진 산과 같은 존재인데 사람이 만나도록 공간을 조성함. 올라프라는 작가는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했음. 직접 만나서 만져보고 오감으로 교류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 아닐까 생각함.
- 테이트모던의 백남준 특별전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음.

《방문기관 사진》



정책토의

- 일 시 : 2019. 10. 25.(금) 20:00~20:30 (현지시간)
- 참석자 : 출장자 10명
- 토의장소 : 노보텔 런던 웨스트 1층 로비
- 토의내용 정리

▶ 테이트모던&런던 도심 방문 소감

- 런던 도심에는 오래된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것과 아직도 많은 건물이 상점이나 사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임.
-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미술관 자체 기능으로도 유명하지만 밀레니엄 브릿지와 함께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
- 폐발전소 건물을 헐지 않고 미술관으로 개조하여 관광자원화 한 것은 현대적인 개발에 치중하는 세대에 많은 교훈이 되고 있음.

▶ 군정 접목 제안

- 브라운필드 사업과 관련 장기적으로 장항제련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시설을 다양한 분야로 재생할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장항은 제련소 굴뚝이 랜드마크로 상징하는 의미가 큼. 그러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관조명 사업 외에도 제련소 굴뚝과 제련소 시설을 활용하여 역사 문화 시설로 재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런던 도심에는 테이트모던 미술관, 세인트폴 성당, 타워브릿지, 버킹검 궁, 런던 타워, 국회의사당 등 다수의 랜드마크가 있어 관광객들을 오래 머물게 하는 자원이 있음. 우리 군도 장항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거점을 연계하여 방문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관광개발을 해야 할 것임.



《정책토의 장면》

5 5일차) 대영박물관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9. 10. 26.(토) 13:00 ~ 15:00
- 성명(안내자) : 영국 현지가이드(황00)
- 소재지 : British Museum, Great Russell Street, London WC1B 3DG
- 연락처 : +44 20 7323 8000
- 홈페이지 : <https://www.britishmuseum.org/>
- 시설소개
 -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대영박물관은 런던 블롬즈베리 러셀광장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박물관이며 제국주의 시대에 약탈한 문화재를 비롯하여 그리스 이집트, 세계 전 지역의 다양한 유물들이 많이 있음.
 - 한스 슬로한이 유물 8만점을 국가에 매각해 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립박물관을 짓게 됨. 국립박물관으로 8만점은 너무 적기 때문에 식민지 등지에서 많이 수집함. 현재는 13백만점 소장하고 있고 전시공간을 통해 8만~9만 점을 전시함.
 - 우리나라와 관련된 유물도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한국관(67실)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활동 내역

박물관 견학 등

- 미이라 : 기원전 2800년쯤으로 추정되는 미라로서, 피부에 손톱, 머리카락까지 남아있다.
특히, 머리카락이 생강 색이라서 진저맨이라고 불리고 있음.
- 랍세스 2세 석상 :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로 손꼽히는 군주로서 젊고 건장한 파라오의 모습을 새긴 큰 석상이 있고 옆에는 노년 시기의 모습을(혹은 실제 용모를) 새긴 비교적 작은 크기의 석상이 전시되어 있음.

- 판테온 갤러리 : 그리스 판테온 신전에 있는 조각품들을 통째로 옮겨 놓았음. 신전 벽의 부조와 조각상들의 세밀한 조각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함. 훗날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우상숭배 금지의 여파로 대부분 조각상에 머리 부분이 파괴되었음.
- 아시리아관-라마수 : 사람의 얼굴에 황소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 아시리아 왕국에서 액운을 막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
- 로제타 스톤 : 고대 이집트 문명의 비밀을 연 열쇠가 된 석상으로서 같은 내용을 고대 이집트 신성문자와, 일반 대중이 사용했던 문자, 그리스어로 한 비석에 새긴 비석으로서 이집트 고대문자 해독과 고대 문명 해독의 열쇠 역할을 하였음.
- 그레이트 코트 : 중앙에 있는 건물은 원래 영국도서관 건물로 쓰였는데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을 집필한 공간이기도 함. 밀레니엄 브릿지를 설계한 영국의 유명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여러 건물을 유리천정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음.

《방문기관 사진》



V 시사점(특이사항)

□ 이든프로젝트

- 야외 정원을 철마다 다르고 아름답게 꾸미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임. 매년 12월까지 수십만 본의 야외 식물을 다시 식재하고 관리함. 국립생태원의 경우 내부 에코리움은 이든프로젝트보다 나은것 같고 외부 공간 구성을 더 효율적으로 하면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듯함.
- 지역주민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음. 매년 하루를 정하여 지역 주민들과 식사를 하는 빅런치 행사라든지 인근 학교의 학과수업 실습지로 연계해 운영한다는 점은 향후 시설 조성 시 참고가 될 만함.
- 정부 보조금 없이 독립적인 운영이 되었다는 것 역시 눈여겨볼만한 대목임.
- 이든 프로젝트는 아이와 함께 하는 걸 가장 중요시하며, 항상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재미있게 발전시켜 스토리가 있는 이든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 가든은 지겹다는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아이들을 포커스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홍보하여 사람이 찾아오는 이든을 만들어 가고 있었음.

□ WWT 슬림브릿지

- 영국에 9개 습지를 조성하고 전세계적으로 협업을 하는 단체로서 활발한 국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도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안내한 팀장은 자연 그대로의 복원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홍학이 사는 공간이 있기는 했으나 되도록이면 지역의 자연환경에서 크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철새들이 저절로 모이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습지에는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자라나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생태계와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이 필요함.

- 장항 브라운 필드 인공습지, 자연습지, 염습지 구성에 따른 충분한 고민과 습지 조성시 레저용 인지 물흐름 그대로 조성할 계획인지 우선 방향 설정 후, 전문가의 컨설팅 등 다각적인 생각으로 디자인을 결정한 후 사업을 추진함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함.

□ **케이츠헤드(밀레니엄브릿지, 발틱현대미술관)**

-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모두 성공을 거둔 케이스임. 북쪽의 천사도 처음에는 다소 비난을 받았으나 관광명소가 되었고, 밀레니엄 브릿지와 발틱현대미술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음.
- 하지만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랜드마크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많은 비난에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음.
- 박물관은 소장 미술품이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야 한다는 기존의 방식을 깨고 지역민들의 작품을 기획전시 체제로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미술관으로 인식되어 성공할 수 있었으며, 그로인해 비용절감과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음.

□ **세필드 시티의 도시재생**

- 도시재생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의 전체적인 경제 문화체제를 바꾸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배움.
- 세필드시티 광장 주변 도시재생의 핵심은 다양한 인종, 계층, 세대의 사람들을 다시 원도심으로 불러들이는 것이고 도심의 신·구를 조화시키는 것임.

□ **테이트모던 미술관**

- 미술관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조성한 시설로서 사람들이 만나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교육과 체험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짐.

□ **대영박물관**

- 영국에 있는 박물관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영국과 관련된 전시물은 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집트, 그리스 등 다른나라의 중요한 전시물이 훨씬 많은 박물관임.

- 대부분 대영제국 시절 다른 나라에서 수탈해오거나 사온 유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박물관으로 옮겨와 오히려 도굴이나 파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아이러니 함.

VI 정책제언

□ 브라운필드 조성 방향

- 브라운필드 인공습지를 조성은 습지조성 경험이 많고 해외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WWT 같은 국제 전문 단체에 자문을 통하여 치밀하게 설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브라운필드와 가까운 서천갯벌과 유부도에 도래하는 철새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인공습지를 조성할 경우 생애 주기별(아동, 청·장년, 노년) 체험 프로그램과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아이들에게 환경을 중요성을 교육하고 더불어 생태 환경 체험객들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조성 후 가능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영비가 최소화 되도록 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회비, 식당, 기념품 숭 등 수입원을 창출하여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브라운필드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지역의 로컬에서 받으며 지역민이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의식개선이 필요함.
- 조성 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호감과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임.
-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감을 우선시하고 그런 후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의 사람을 끌어들이 수 있는 재생사업 필요함.

□ 지역의 도시 재생 추진방향

- 도시 재생은 도시를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선행한 후, 미래 사회의 메가트렌드(저출산, 고령화, 장기저성장 등)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구상해야 함.
- 도시 재생을 통하여 인구 유입도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거주하는 인구의 유출을 막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 도시재생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함.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운영비 부담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항 송림산림욕장 경우처럼 기존에 있는 자원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함.

□ 지역 문화 유산 보존의 노력

- 장항 지역의 경우 일제강점기부터 발달한 산업도시로서 많은 근대 역사 유산이 있었으나 상당수가 없어져 이제 소수만 남은 상황임.
- 문화적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함. 지역 내 역사문화 유적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보존해야 할 상당한 가치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존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 관광 활성화 추진 방향

- 우리군 내에는 적지 않은 관광 자원이 있는데 거점단위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 곳을 방문하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
- 런던 도심과 같이 국립생태원-장항 구도심과 신시장-브라운필드-송림산림욕장 등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함.
- 장항제련소 굴뚝 등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엮어 활력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관광개발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추가로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임.(끝)